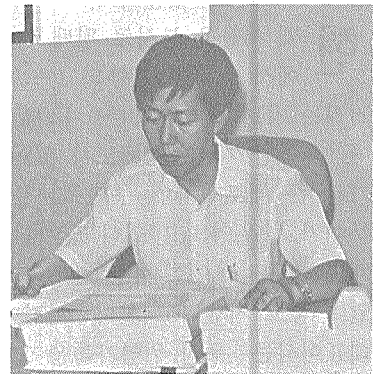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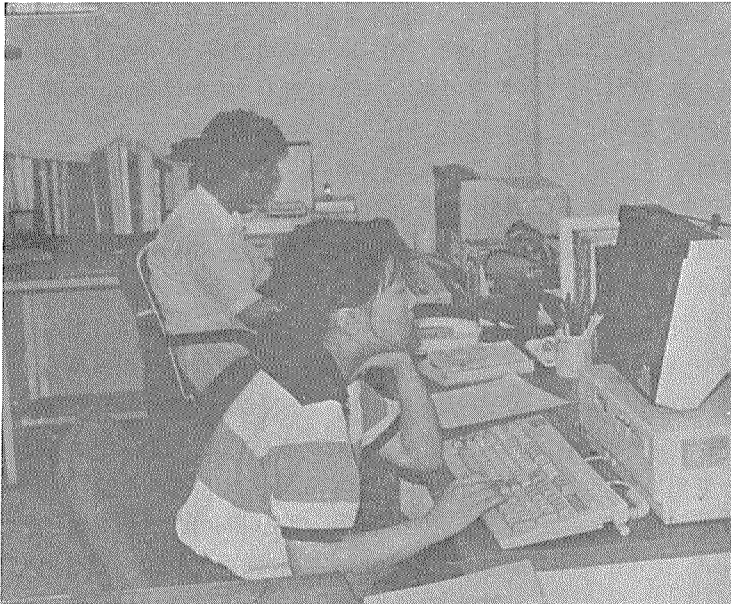


기술축적으로 세계로의 도약을.....

※ 편집자주 : 본지는 창립 1년여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주)인터링크시스템 부설연구소를 찾아 보았다.



임 종 락
연구소 소장

연구소 설립 배경은?

저희 인터링크시스템 부설연구소는 회사창립과 동시 발족하여 '90년 5월 4일 설립되었고 Network 사업에 중점적으로 연구하자는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첨단분야라 일컫고 있는 Network쪽이 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 인원은 15명으로 석사위주로 운영되고 있지요.

향후 연구소 운영 계획은?

이제까지 해왔던 네트워크쪽의 토털포지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지요. 물론 순전히 자체 기술이지요. 이것이 완성되면 유닉스시장에서 지금의 비즈니스 컴퓨터 역할을 넘어서 네트워크의 터미널콘트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인력수급 대책에 대한 견해는?

글쎄요, 한마디로 국내 전자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학사특례제도를 폐지를 했는지 몹시 아쉬운 일이라 생각돼요. 어느 특정분야에 대한 예외가 많이 있거든요. 꼭 석사위주의 특례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또한 대학교육기관들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나름대로의 퍼스넬리티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실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우리같은 연구기관은 실력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파고드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같은 작은 연구소도 인력으로 인한 고심이 많은데 큰 기업에서는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연구소 활성화 대책은?

저희 연구소는 설립한 지 겨우 1년 하고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드릴 말씀은 기술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기술을 축적시키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면 관리로 진출하지요. 그러니 지금까지의 기술은 말짱 헛것이 되지요. 참으로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계속적인 기술축적과 전수로 연구소는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한가지는 작은 연구소끼리 협동이 잘 되어야겠지요. 중소기업들은 뭉쳐야 발전하지 서로 경쟁만 앞세우면 이것 또한 연구소 발전에 저해되는 이유지요.

한 예로 어떠한 기술개발 수주를 분담하여 연구하면 기간도 짧게 걸려 좋고, 경쟁력 없어 좋고, 다 좋지요.

하지만 서로 욕심만 앞세우면 서로 피해보기 십상이지요. 이제는 내·외적인 상황으로 보아 뭉쳐야 할 때입니다.

연구소 자랑은?

글쎄요 워낙 짧은 역사라 자랑이 없어요. 있다면 우리 연구소는 할 수 있다는 공지가 타연구소보다 강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지가 바로 국산화 개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자랑입니다.

산·학 협동에 관한 견해는

사실은 기업부설연구소가 도와줘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협동이 부족한 이유로 저의 생각은 목표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기업연구소와 학교연구소는 사실 역할이 다르거든요. 학교연구소의 장점은 일할 수 있는 멤버가 우수하다는 것과 가장 신선하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도 외국과 같이 산·학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대단한 힘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나 업계에 대한 건의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의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술로 승리하겠다는 중소기업소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작은 연구소의 애로는 아시다시피 자금 및 정보지원의 부족입니다.

연구투자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많은데 투자대상들이 정부투자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로 한정되니 우리같은 작은 연구소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정확한 분배정책이 아쉽다고나 할까요?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극복해 나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분야는 통신시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이 있다면 대기업이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의 유명기업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소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기초기술부터 올라온 중소기업연구소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강시와 부시맨

먼 저 부시맨들의 문화를 살펴보자

호이산(Khoisan)을 사용하는 수인종인 부시맨들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수천년이나 뒤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물의 이동, 달의 차고 기울음, 그리고 소유나 일의 의미를 모르는 존재와 조화되는 그런 기술이다. 부시맨의 언어에는 일과 관계되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다. 그들의 언어는 단지 열두개 정도의 Click(짹짹 하는 소리, 비유적으로는 서로 의기가 상통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은 유럽사람들에게는 그저 !로 밖에 쓸 수 없는 말이다.

한 편 본영화에서 훌륭한 수도자 Ying은 London에 있는 중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Tangs의 초대를 받는데, 영국 박물관에 비밀리에 안치되어 있는 그들 조상중, 하나의 육체를 풀어주기 위해 박물관에서 몇가지 제주(요령, 마술)을 부린뒤 Ying과 Ping(Tang 가족을 이끄는 젊은이)은 종교적연단(Religious Platform)이 세워져 있는

차이나 타운으로 돌아갔다.

육신도 성공적으로 풀어 주었다. 불행히도 빛(Spot Light)을 많이 쬐어 육신이 수축되어 야맹증(밤눈 어두움)이 되고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이것이 큰 동요를 일으켜 결국 육신을 사로 잡고 경찰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를 강탈한다.

안개와 나침반의 고장으로 그들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연료도 떨어졌다. 그들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해 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Zulu는 Nixau 아래에, 다른 종족과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Nixau는 하늘에서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다. 단정적으로 그들의 동맹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공격했으나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즉시 물러났다.

왜냐하면, Zulu는 신이 그의 부족으로 도와줄 놀라운 사람을 보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다행스럽지 못하게 Ping과 Ying는 착륙하여 다른 원주민에게 사로 잡혔다.

그들은 재주를 피워 그러저럭 피해 다니다 후에 Nixau의 캠프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Nixau가 그들에게 육신을 멀리 보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그들은 Zulu 일행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백인노예 상인과 Zulu사이의 대화로 그들이 Nixau 군대를 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Zulu의 마법사는 육체를 유사한 또 다른 걸어다니는 괴물을 만들었다. Ying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육체를 도와 마법사를 이겼다. 치열한 대결후에 Nixau의 군대는 Zulu의 군대를 쳐부수었다.

그때 영국에서 Tang일행이 아프리카로 추적해 그들을 찾게 된다. 결국 Ying은 그의 사절(전도 Mission)을 마쳐서 즐거워 한다. 모든 모험이 끝나고, Nixau와 그의 부족들은 다시 정상적인(보통의) 생활로 돌아간다.

